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ALL THEIR MINDS IN TANDEM

가제 : 똑같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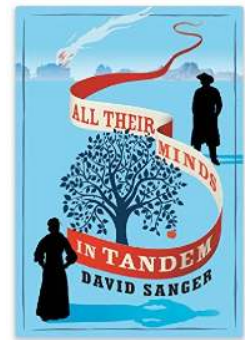
저자 : David Sanger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수수께끼 같은 남자, ‘만드는 자’**

남북전쟁이 끝나고 14년이 지난 1879년의 가을,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뉴 조지타운’이라는 마을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있던 곳이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운 이름과 모습으로 다시 형성된 것이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에머슨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뉴 조지타운을 찾아왔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탓에 어깨가 두 동강 날 것만 상태로 마을에 들어선 에머슨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우체국이었다. 아직 내부가 정돈되지 않아 어수선한 우체국 안에서 그는 직원에게 우편물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내밀었다. 하나는 에머슨, 다른 하나는 ‘만드는 자’였다. 이상한 이름에 의아해하는 직원과 달리 에머슨은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로 편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반신반의하며 편지함을 뒤진 우체국 직원은 ‘만드는 자’ 앞으로 온 편지를 발견했다. 에머슨은 건네 받은 편지의 고급스러운 봉투를 뜯어 안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 한 장을 확인했다. 작성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없이 ‘롱케이프 여관’에서 만나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에머슨은 이미 어둑해진 거리를 가로질러 롱케이프 여관을 찾아 나선다.

그로부터 한달 쯤 전인 9월, 지역 신문 <웨스트 버지니아 오라클>에는 묘한 광고가 실렸다. “참전군인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짭작한 광고는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잊거나, 더 나은 기억으로 대체해야 합니다.”라고 한 후 “‘만드는 자’와 이야기해보세요. 뉴 조지타운 우체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트라우마 상태에 따라 책정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만드는 자’, 바로 에머슨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 조지타운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한다. 그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각자의 아픔, 비밀, 수상한 능력을 숨긴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의 진짜 목적은?**

수상한 사람은 에머슨만이 아니었다. 뉴 조지타운의 주민들 역시 에머슨 못지 않게 어딘가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체구가 유난히 작아서 눈에 띄는 의사 움브룬트 씨는 보기와 달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언덕 위 작은 집에서 함께 사는 키티, 불량쉬, 엘레나 세 자매도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자매 중 둘째인 키티는 냉정하고 엄격한 언니나 언니와 정반대로 경박하고 까불기만 하는 동생과 멀찍이 거리를 둔 채, 머릿속을 휘젓는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홀로 고투를 벌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힘겨워한다. 에머슨에게 메모를 남긴 사람이 약속 장소로 지목한 롱케이프 여관 역시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수수께끼 같은 과거, 유령과 비밀이 묻혀 있는 이 여관에는 ‘새’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음악 연주자가 있다.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새카만 벨벳 커튼 뒤에서만 연주하는 그의 음악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신기한 힘이 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이 ‘새’의 음악을 들으며, 연주의 꿈을 불태우는 젊은이도 있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서 배운 음악을 언젠가 꼭 제대로 연주하고 말겠다는 꿈을 남몰래 간직한 오델은, 뉴 조지타운에서 가장 비열한 인물인 클레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겁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우적댄다.

이들 앞에 찾아온 에머슨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 온 열정을 다해 오래 전부터 생각한 목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삶에 일대 혼란이 찾아오고, 에머슨이 이들의 마음에 밝힌 작은 불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불타 오른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전쟁보다 더 끔찍한 기억이 남게 될 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머릿속 생각들, 이들이 드나드는 방 곳곳과 과거 이야기가 하나씩 밝혀지고, 그 속에서 이들 각자가 바라는 것, 숨기려 하는 것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만드는 자’, 에머슨이 왜 이들을 만나러 왔는지, 그 목적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 <저자 소개>

데이빗 생어(David Sanger)는 페이버 앤 페이버(Faber & Faber)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스콜라 스틱(Scholastic Children's Books)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런던 극예술학교(London Academy of Music and Dramatic Art)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제목 : EXIT ROW

가제 : 비상구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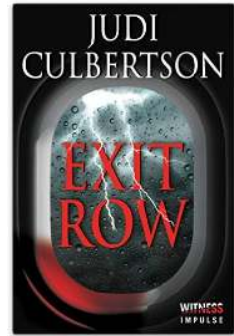
저자 : Judi Culbertson

출판사: Witness Impulse

발행일: 2016년 3월 22일

분량 : -

장르 : 스릴러



###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네 명의 승객들,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들의 행방을 찾아 나선 사람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는 여행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막상 비행기의 거대한 몸체가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이다. “무사히 착륙하지 못하면 어찌지? 이대로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두려움을 토대로,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승객들과 이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완성됐다. 행적을 알 수 없는 비행기, 약속한 시각에 나타나지 않은 사랑하는 이들을 쫓는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직접 발로 뛰며 진실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피오나는 타오스로 떠났던 리가 돌아오는 날, 그를 데리러 뉴욕 아이슬립 공항으로 향했다. 겨우 4일 떨어져 지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매일같이 붙어 지낸 두 사람에게 4일은 4년처럼 느껴진다. 피오나는 리가 덴버에서 갈아 타기로 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공항 안으로 들어섰다. 리와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할 식당도 예약되어 있고, 내일이면 그가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대로 둘이 함께 지낼 아파트를 구할 것이다. 공항의 자동문을 들어서서 피오나의 심장은 설렘으로 연신 두근거렸다. 전광판으로 리가 타기로 한 덴버 발 비행기가 연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오나는 커피나 한 잔 하면서 기다리기로 한다. 온갖 흉악 사건들을 접해야 하는 변호사로 골치 아프게 살다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면서, 피오나는 커피를 마시며 한 월간지에 보내려고 써둔 원고를 꺼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가 탄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광판으로 전해졌고, 피오나는 들어오는 승객들의 얼굴 속에서 리를 찾았다. 한동안 줄지어 빠져 나오던 인파가 줄어들고 급기야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도 리는 나오지 않았다. 당황한 피오나는 승무원들에게 다가가 혹시 탑승 못한 승객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마침 걸을 지나던 한 승객이 피오나의 말을 듣고 자신도 타오스에서 덴버로 온 뒤 이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타오스 발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환승 시간이 아주 촉박했다고 이야기한다. 리가 비행기를 놓친 걸까? 그렇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피오나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비행기에서 벌어진 알 수 없는 사건, 영문을 모른 채 실종자를 찾아 나선 가족과 친구들의 추격전

항공사 카운터로 찾아간 피오나는 상황을 설명하지만, 덴버에서 비행기를 놓쳤다면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리가 미처 환승을 못하고 다른 비행기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 연락을 못했으리라 생각하면서, 피오나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한다. 마침 근처에는 피오나와 같이 도착해야 할 일행을 만나지 못해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어린 아들 데렉과 말썽꾸러기 딸 브렌다를 데리고 온 매기라는 여성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했고, 우아하게 차려 입고 잡지를 들여다보는 젊은 여성과 그녀에게 살짝 관심을 보이는 남자도 한 명 있었다. 피오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면서 얼른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덴버에서 출발한 다음 비행기에도 리는 없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리 한 명만이 아니었다. 분명히 타기로 한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승객은 총 네 명, 게다가 이 네 명 모두 비행기에 탑승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피오나를 주축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직접 조사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피오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를 발견하고, 그 때부터 실종자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피폐한 삶을 겨우 이어가고 있던 이들은 지금까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고된 싸움이 되고 말았다.

#### <저자 소개>

주디 컬버튼(Judi Culbertson)은 중고 도서와 희귀 도서를 판매하면서 사회봉사와 세계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다. 남편 톰 랜달(Tom Randall)과 함께 『Permanent Parisians』 등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일러스트레이션 가이드 북 다섯 권을 발표했다.

제목 : IT'S ALL YOUR FAULT

가제 : 이게 다 너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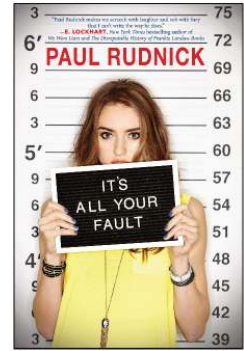
저자 : Paul Rudnick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2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유머



Paul Rudnick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며, 이 책은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꼭 알고 싶다.—Andy Cohen (“The Andy Cohen Diaries”의 저자로, New York Times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Watch What Happens Live”의 진행자)

#### 고성방가에 절도, 납치까지 저지르고 감방 신세를 지게 된 모범생, 말썽쟁이 사촌과의 48시간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올곧고 양전한 모범생으로 칭찬 받던 케이틀린은 정신 차리고 보니 감옥에 앉아 있다. 부모님은 물론 경찰, 뉴욕 시장, 별때처럼 모여든 기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트위터로 일파만파 전해진 뉴스거리를 만들어낸 케이틀린은 이 모든 상황이 어이 없을 뿐이다. 멀쩡하던 코에는 피어싱이 걸려 있고, 몸에 문신까지 보인다. 이게 다 완전히 혼을 쏙 빼놓은 이틀 동안 벌어졌고, 전부 동감내기 사촌 헬러 해리건이 만들어놓은 일들이다. 대체 두 소녀에게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케이틀린은 학교도 가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교과목 전체를 공부했다. 열일곱 살에 이미 대학교 열두 곳에 입학 지원서를 내고 합격 통보만 기다리고 있던 이 똑똑하고 다소곳한 소녀는 어릴 때부터 늘 바른 행동만 하고 어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써 왔다. ‘노래하는 싱글베리 가족’이라는 애칭답게 가족들과 건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가 활동의 전부인 케이틀린에게 어느 날 곤란한 부탁이 전해졌다. 친척들을 비롯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독한 말썽쟁이로 소문이 자자한 사촌 헬러와 딱 이틀만 함께 지내면서 헬러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는, 썩 내키지 않는 부탁이었다. 어릴 때부터 연기자로 활동한 헬러는 할리우드 전체가 들썩일 만큼 큰 화제가 된 영화에 출연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명인사가 됐다. 그 영화의 대대적인 개봉을 며칠 앞두고, 헬러가 이 중요한 시점에 술을 퍼 마시거나 지저분한 스캔들을 만들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만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못해 승낙한 케이틀린은 중독 문제로 4개월 동안 재활원에서 지낸 헬러가 퇴원하는 날, 마침내 헬러와 만난다. 한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두 소녀. 수수께끼 같은 일로 헤어진 어느 날 이후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의 불편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5년의 시간이 만든 두 소녀의 상반된 인생, 갈등이 빚어낸 사건들

단란한 가정에서 특별한 고민도,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케이틀린과 달리 헬러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름을 ‘엑스터시’로 개명해버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엄마와 단둘이 살아야 했던 헬러는 열두 살에 우연히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유명한 연예인이 됐지만, 스캔들만 찾아 다니는 언론의 감시망과 대중의 뜨거운 사랑은 헬러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결국 술이며 약물에 절어 스캔들을 수시로 만들어낸 것도 불안한 현실을 잊으려는 몸부림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삶은 운이 따라주었는지 승승가도를 달렸고, <천사의 전쟁>이라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주연으로 전격 캐스팅되면서 헬러를 향한 세상의 관심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뉴욕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영화 개봉 행사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소속사에서 준비한 어린 암 환자와의 데이트까지, 헬러가 카메라 앞에서 무사히 해내야 할 일들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그녀 앞에, 어릴 때 헤어진 사촌 케이틀린이 조수이자 감시자로 나타난 것이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소녀의 불편한 만남은 처음에 모두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크게 충돌하고 갈등은 극에 달한다. 동시에 정반대 방향의 양극단에 치우쳐 사느라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던 두 소녀의 남모름 고민과 문제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충동적이고 망아지처럼 날뛰는 헬러를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던 케이틀린은 난생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대고 남자와 키스를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컨버터블 승용차를 훔치고 사람을 납치하기에 이른다. 헬러는 영화 개봉일에 레드카펫 행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까? 사촌 때문에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세가 된 케이틀린은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고 보면 둘 다 문제투성이인 두 소녀가 만들어내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통해 연예계와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들, 과도한 취재 경쟁, YA 소설들의 판에 박힌 듯한 줄거리를 매섭게 꼬집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폴 루드닉(Paul Rudnick)은 소설가, 극작가, 각본가, 영화 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영화 ‘아담스 패밀리(Addams Family Values)’와 ‘인 앤 아웃(In & Out)’의 각본을 썼으며, 작가 데뷔작인 YA 소설 『Gorgeous』는 <뉴욕타임스>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제목 : Queen of Blood  
가제 : 블러드 여왕  
저자 : Jill Myles  
출판사: Alloy Entertainment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 20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저주 받은 왕가와 그들의 혹독한 지배로 멎은 사람들, 그 침예한 대립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

영토 전쟁이 한창이던 시대, 전쟁에서 패한 바다리 사람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톤 사람들의 지배 아래 살아왔다. 안톤 사람들, 그 중에서도 ‘블러드’라 불리는 가문이 나라 전체의 통치권을 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안, 바다리 사람들은 이들의 노예이자 수족이 되어 고달프게 살아야 했다. 바다리 사람으로 태어난 세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았다. 앞을 볼 수 없는 동생,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리의 꿈은 두 가지였다. 식탁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라일렌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일렌은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한 사람으로, 성미는 좀 급하지만 인물도 흰칠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형편이 더 어려운 세리에게 전부 다 쥐어줄 만큼 자상한 남자였다. 이렇게 고단한 삶이지만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미래를 꿈꾸며 살던 세리에게, 어느 날 뜻 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왕가의 시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세리가 사는 마을에 우뚝 서 있던 안톤 왕가 소유의 오래된 성이 기나긴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을 끝내자, 그레이엄 왕자가 이 성에 머물면서 주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해줄 일손이 필요했던 차에, 세리도 한 귀부인으로부터 일 자리를 제안 받은 것이다. 세리는 주저하지만, 라일렌은 당장 수락하라고 세리를 설득했다. 안톤 왕가의 무절제한 삶을 뒷바라지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해야 하는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바다리 사람들 중 일부가 견디다 못해 반란군을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원이 된 라일렌은 세리가 적들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스파이 노릇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이다. 결국 세리는 라일렌의 설득대로,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안톤 왕가의 시녀로 성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레이엄 왕자와 만나면서 세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 왕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풀어줄 단 한 명의 여자, 그녀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왕자

블러드 가문의 사람들은 남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호화롭게 살아왔지만, 사실 이 가문은 오랜 옛날부터 무서운 저주에 시달렸다. 블러드 가문을 돌보던 여신이 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내려진 그 저주로 인해, 자손들은 낮에 태양 빛을 보지 못하고 밤이 대신 만들어서 가져

다 주는 것으로만 배를 채울 수 있는데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욕구에 괴로워하며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만 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터나’를 찾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터나는 왕가를 이끄는 남자의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줄 여성이며, 그녀가 왕비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터나와 혼인하는 블러드는 잔혹하지 않고,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톤 왕가는 수 세기 넘게 자신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이터나를 찾아 해왔지만 그 노력은 늘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비다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왕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며, 남의 피를 먹고 사는 괴물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정도였다.

이 불행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레이엄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이나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전혀 다른 아이였다. 가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피도 마시지 않았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보다 공정하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다스리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을 품고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는 왕국의 변두리 지역인 비다리로 보내버렸지만, 그레이엄 왕자는 실망하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새 하녀로 들어온 소녀, 세리와 만나면서 그레이엄 왕자의 삶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거스른 적도 없고 절대 거스를 수 없다고만 생각해온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이 특별하고 매력적인 소녀를 본 날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울려대는 심장의 신호를 따라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라일렌을 비롯한 비다리 반군들이 점차 힘을 키워가면서 결국 안톤과 비다리의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세리는 라일렌을 도와 스파이로 활약하며 급기야 그레이엄의 목숨까지 노린다. 절체절명의 상황, 무시할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사랑, 그레이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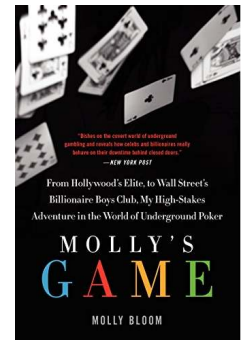
왕자와 가난한 소녀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거쳐 조금씩 성장해가는 인물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과 마주하고 자신의 길을 택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이 만든 정의와 도덕의 기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답 없는 갈등들이 충분히 공감을 일으킨다.

#### <저자 소개>

질 마일스(Jill Myles)는 작가 제시카 클레어(Jessica Clare)의 필명으로, 그 동안 발표한 에로틱 로맨스 소설들 다수가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선정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제시카 심스(Jessica Sims)’라는 필명으로 초자연적인 소재의 소설들도 발표해 왔다.

## NON-FICTION

제목 : MOLLY'S GAME  
가제 : 물리의 게임  
저자 : Molly Bloom  
출판사: Dey Street Books  
발행일: 2015년 1월 20일(재판)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소셜 네트워크’와 ‘스티브 잡스’의 각본을 담당한 애런 소킨의 연출을 통해 영화화 결정!**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 백만장자들을 위험천만한 포커 게임에 불러 모은 ‘포커 공주’의 삶**

‘할리우드의 포커 공주’로 불리던 여자, 한 때 올림픽 스키 선수를 꿈꾸다가 우연히 머물게 된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비 맥과이어, 벤 애플렉, 매트 데이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이름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포커 판을 이끌어온 몰리 블룸이 자신의 영화 같은 삶을 회고록에 담았다. FBI에 달미가 잡히기 전까지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오직 초대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포커 테이블을 만들어온 이 특별한 여성의 이야기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한 각본가 애런 소킨(Aaron Sorkin)을 통해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촉망 받는 각본가로 꼽히는 그가 각색과 함께 처음으로 직접 감독까지 맡기로 하면서 몰리의 인생은 다시 한 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업계의 거물,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백만장자들이 최고급 정장을 차려 입고 모여 들었던 몰리의 포커 게임 판, 8년 동안이나 이어진 그 은밀한 도박은 몰리에게 경제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물론, 평범한 여대생을 거물급 인사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할리우드 곳곳에서 벌어진 소문들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몰리는 법도 규칙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의 삶을 돌아보며, 세계 최대 규모의 포커 게임이 자신을 통해 시작된 배경과 그 이면에 얹힌 사건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알게 된 깨달음을 진솔하게 털어 놓는다.

태어나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콜로라도에서 살았던 몰리는 학교 공부나 운동에서 늘 앞서가기를 바라던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압박감을 느끼며 자랐다. 특히 몰리의 아버지는 무엇이든 경쟁으로 생각해서, 몰리와 남동생 제레미가 겨우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자 바로 시합을 부추기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훈계를 할 만큼 성적에 목숨을 거는 분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말마다 가족 모두가 스키를 타러 다닌 탓에 몰리와 남동생은 자연스레 스키 선수를 꿈꾸게 되었고 남매는 취미로 스키를 타는 또래들과 비교도 못할 실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열두 살 때, 몰리는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척추가 손상되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운동에 대한 집념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재능을 타고난 형제들에 대한 시기심과 반드시 올림픽 출전권을 따서 부모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말겠다는 욕심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스키 선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그토록 꿈꾸던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경기에서 기회를 놓치고 난 뒤에야 그 모든 과욕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깊이 몰들어버린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겨우 놓은 그녀는 대학 공부도 쉬고 그리스에서 1년간 공부한 뒤 LA로 향했다. 여행 중에 만난 친구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낯선 도시에서 몰리는 칵테일 바의 웨이트리스로 취직했고, 그 때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스릴 넘치는 인생의 제 2막이 시작됐다. 순진하고 겁 없는 여대생이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포커 게임 한 가운데서 성난 거물들을 쥐락펴락하는 조련사이자 중개자, 없어서는 안 될 산소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이 몰리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로 생생하게 전달된다.

선을 넘어서 탐욕과 두려움을 잊어버린 위험, 화려한 삶에 폭 빠졌던 몰리가 만난 세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 <목차>

시작하면서

1부. 초심자의 행운

2부. 헐리우드화

3부. 성급한 게임

4부. 쿨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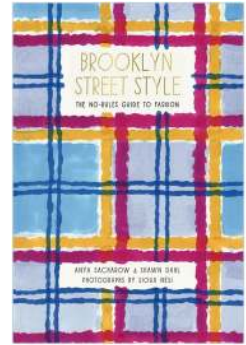
5부. 칩과 의자

6부. 차갑게 식어버린 카드

#### <저자 소개>

몰리 블룸(Molly Bloom)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LA에서 판돈 기준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포커 게임을 수 년 동안 조직했다.

제목 : BROOKLYN STREET STYLE  
가제 : 브루클린 스타일  
저자 : Anya Sacharow, Shawn Dahl, Sioux Nesi  
출판사: Harry N. Abrams  
발행일: 2015년 9월 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패션, 문화



**훌륭하고 풍부한 사진과 생기 어린 텍스트는 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한다. -Anne Hellman ('Design Brooklyn'의 저자)**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 패션과 문화를 선도하는 브루클린만의 특별한 매력**

브루클린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는 것, 제각각 다채롭고 창의적이며 다른 어느 지역이나 거리에서도 볼 수 없는 스타일이라는 점이다. 또 '멋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모습들에는 개성이 진하게 담겨 있지만 일상생활과도 어긋남 없이 잘 어우러지는 점 또한 브루클린만의 특징이다. '정해진 규칙이 없는 패션 가이드'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는 브루클린이 이 같은 매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패션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브루클린에서 살고, 머물고, 일하면서 현장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전하는 조언과 팁을 전한다. 디자인, 패션, 음식,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큰 명성을 누리는 이들 전문가들에는 스타일 전문가인 메리 앨리스 스티븐슨(Mary Alice Stephensen), HBO TV 시리즈 <걸스(Girls)>의 의상 디자이너 젠 로젠(Jenn Rogien), 자연스러운 패션과 아름다움, 건강, 음악, 예술, 문화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어번 부시 베이브스(Urban Bush Babes)>의 블로그 운영자 치프리아나 콰(Cipriana Quann), 브루클린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 팝 듀오 '슬레이 벨스(Sleigh Bells)'의 일원이자 뷰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알렉시스 크라우스(Alexis Krauss), 배우이자 극작가인 에이사 데이비스(Eisa Davis) 등이 포함된다.

브루클린이 세계적인 스타일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로, 언론 매체들은 당시 브루클린에서 막 꿈틀대기 시작한 예술과 음악에 주목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대신 녹록한 창고 안에서 파티가 열리고 어두침침한 가건물에 바가 차려진다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전에 없던 문화를 경험하고자 사람들이 브루클린으로 향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브루클린 거리에는 어딘가 꺼림직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상점가도 흥흥한 느낌을 주고, 골목 구석이나 허름한 건물의 밀실에서 부도덕한 무리들이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브루클린에는 번지르르한 고급 식당만 찾던 미식가들까지 일부러 오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점들이 차곡차곡 들어섰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예술가, 음악가,

요리사들이 알아서 모여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마침내 브루클린은 유행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여 디자인과 예술, 대중문화, 패션의 기준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했다.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란 작가 겸 리포터, 뉴욕에 살면서 25년 넘게 사진, 패션, 스타일북 분야에서 일해온 디자이너 겸 편집자, 그리고 브루클린에 살면서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패션, 뷰티, 화보 촬영을 해온 사진작가, 이 세 사람이 함께 쓴 이 책은 브루클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패션, 스타일, 개개인의 자화상에 지금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본다. 더불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 운동’이나 생태계 보존을 중시하는 패션 등 브루클린 구석구석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 175장이 넘는 컬러 사진과 함께 제시된다. 브루클린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과 지역 토박이들이 각각 전하는 스타일 팁, 둘러볼 만한 상점과 시장, 음식점, 바에 관한 소중한 정보도 가득하다.

#### <목차>

머리말. 브루클린 스타일이란?

1.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라 / 잠깐 정보 - 여러 가지가 섞인 무늬
2. 혼합하라
3. 실생활에 어울리는 옷 / 잠깐 정보 - 신발
4. 소속 집단이 드러나도록 입어라 / 잠깐 정보 - 모자
5. 의식을 걸쳐라
6. 직접 만들어라
7. 호들갑은 금물 / 잠깐 정보 - 아름다움

(이하 생략)



Finding footwear that is both elegant and comfortable is a challenge. Think about the shape of the shoe rather than the height of the heel. A bulkier design can weigh you down, and the appearance of an artisan, or draw too much attention away from your frame. Writer Kathleen Hackett's ankle booties (left) by Baruschini and sandals (right) are light enough to wear bare-legged with a skirt and still look polished. The Tahiti Simons one-shoulder pointed oxfords on heavy-duty Jessica Richards (above) balance her skinny jeans.



Click here from top left: The on-trend Bismarck sandal, now quite chic,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80 years. Of course, many Brooklyn women still love their heels. We drew Isabel Marant sandals. For walking the dog, a low heel works for Blumaker Tamara Love. Once considered a fast pass, socks with sandals hit the Barbary Promenade runway several years ago, followed by Prada and Hermès, among others, which only confirms that there are no rules in fashion.



**B**y many accounts Brooklyn's reputation for sustainability started in 1998, when a painter named Andrew Tarlow opened a small Williamsburg restaurant called Diner. At the time, the neighborhood was an industrial, urban frontier of warehouses, raw left spaces, cheap rents, and the creative types drawn to both. Tarlow created Diner in a 1920s Kullman dining car under the Williamsburg Bridge so the neighborhood could have a place to meet and eat. Driven by its locally minded chef, Caroline Fidanza, Diner served farmers' market goods and grass-fed burgers. It was exactly what people wanted. Even Manhattanites crossed the bridge to see what this new 718 outer-borough dining scene was about. Over the next several years, Tarlow built a Brooklyn epicurean empire of restaurants, bars, a food journal, and a boutique hotel—all with the same local/sustainable ethos.

Nearly two decades on, you can't do much in Brooklyn without tripping over the word "sustainable," especially in the borough's hyped food world. And what is now viewed as common sense by foodies is increasingly being adopted by fashionistas.

WEAR YOUR CONSCIENCE • 93



At the Newtown Creek Nature Walk in Coney Island, Tania Inglis wears her eponymous designs: a butterfly hem black dress and leather jacket (left) and a shift dress made from cotton and reindeer hide (opposite).



<저자 소개>

안야 사차로우(Anya Sacharow)는 작가이자 문화 분야 리포터로 <타임>,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롤링스톤스>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숀 달(Shawn Dahl)은 도서 디자이너이자 편집자로 <Time Out>의 ‘먹거리 & 마실거리’ 섹션 편집과 뉴욕 여행 가이드북 편집을 담당했다.

수 네시(Sioux Nesi)는 패션, 뷰티, 화보 사진작가로 활동해왔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다양한 잡지와 광고에 게재되었다.

제목 : HOW TO WIN AT FEMINISM  
가제 : 페미니즘 성공 가이드  
저자 : Editors of Reductress, Elizabeth Newell,  
Sarah Pappalardo, Anna Drezen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사회



HarperCollinsPublishers

###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자처하는 웹 매거진 <리덕트리스>가 전하는 진정한 페미니즘의 모든 것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난데없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아주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성 차별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시대별로 이어져 왔지만 단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이다. 거침 없는 풍자와 노골적인 묘사로 ‘최대한 가장 훌륭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방법’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는 여성 매거진으로 유명한 「리덕트리스(Reductress)」 편집부가 만든 이 책은 페미니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와 함께 진보적이고 최신 동향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쿨하고 아름다운 페미니스트가 되는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준다.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페미니스트라면 섹스를 어떻게 할까’와 같은 주제부터 다른 여자가 자신보다 몸매가 훨씬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는 법,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돕지 않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아홉 가지 악순환, 페미니즘과 명품 가방의 관계, 갈등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완승을 거두는 법,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각자의 정신적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깨우는 법, 대인관계의 문제를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법 등 참신한 이야기와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페미니즘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남녀를 불문하고 페미니즘의 성공을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얼마나 대폭 향상되었는지 짚어보면서 그 근거를 제시한다. 투표권은 말할 것도 없고 바지조차 입을 수 없었던 증조 할머니들의 시대를 지나 할머니 세대에 이르러서도 여성들은 집안에만 붙들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해야 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를 낳은 엄마들 세대에 이르러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 차별의 벽, 즉 ‘유리 천장’을 깨부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소위 ‘걸 파워’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여성의 목소리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듯 페미니즘은 기나긴 세월을 거쳐 발전해 왔지만, 이 책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더 길다고 설명하면서 사회가 여성을 인식하는 방식,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계속 바꾸어나가야 하는 이 쉽지 않을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팁과 도구, 정보를 제시한다.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해서 외모를 비롯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가정교육이나 예의범절을 다 무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름답고 강한, 유능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판단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꿈꾸어 온 여성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정보서이자 같은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페미니즘에 관한 오해나 왜곡된 인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목차>

##### 1. 페미니스트가 되는 법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왜 지금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가? / 페미니스트가 바라본 비온세 / 지인들에게 페미니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일까? (이하 생략)

##### 2. 페미니즘: 자세히 살펴보자!

페미니스트가 바라본 ‘진짜’ 여성 / 페미니스트는 속부터 아름다움을 느낀다 / 아름다움의 인식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 페미니스트의 피부관리 / 페미니스트의 화장 도구 (이하 생략)

##### 3. 일하는 여성들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성향 / 일하라! / 직장에 도사린 위험 / 다른 여성 돕기 (이하 생략)

##### 4. 사랑 & 섹스의 방법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레나 던햄(Lena Dunham) / 남자와 데이트하면 페미니스트일까? 페미니스트의 첫 데이트 / 증오할 수 밖에 없는 데이트 앱, 꾸준히 활용하는 법 (이하 생략)

##### 5. 구원자가 되는 법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오프라 윈프리 / 세상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라 / 문제가 될 만한 상품들 / 원죄를 카르마로 바꾸어라!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리덕트리스(Reductress)는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자처하는 웹 매거진으로, 여성 잡지 특유의 구태의연한 정보 대신 각종 매체들이 페미니즘을 얼마나 요상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꼬집어낸다. 2013년에 창간된 이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엘리자베스 뉴웰(Elizabeth Newell)은 뉴욕 코미디 공연 무대에 10년 이상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다가, 리덕트리스를 공동 창립하고 현재 편집을 맡고 있다.

새라 파팔라도(Sarah Pappalardo)는 작가, 배우, 극작가로 활동하다 리덕트리스를 공동 창립했다.

애나 드레즌(Anna Drezen)은 브루클린에서 코미디 전문 배우로 활약하면서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PAST LIFE PERPECTIVE

가제 : 전생을 보는 눈

저자 : Ann Barham

출판사: Atria/Enliven Books

발행일: 2016년 6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건강



### 현생의 문제와 고민이 비롯된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는 '전생 퇴행 요법'과 생생한 상담 사례들

현재의 삶에 앞서 전생이 있었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17년간 결혼생활과 가족 문제 치료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전생 퇴행 요법'으로 알려진 치료법의 전문가로, 이 요법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구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태어나면 아홉 번을 산다는 고양이처럼 인간도 여러 번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영혼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전생과 전혀 다른 육신, 성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전 생에 대한 기억은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거의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전생 퇴행 요법의 기본 전제이다. 저자는 최면이나 그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무의식에 파묻혀 있는 이 전생의 중요한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생에서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냈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까?” 전생 퇴행 요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전생에 겪은 일들을 저자에게 직접 들려준 사람들조차 진위를 의심한다. 저자는 상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정보가 명백한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착각인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고,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위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단언한다. 그보다는 전생의 기억으로 꺼내 놓은 이야기가 스스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현재 처한 각종 문제와 고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되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생 퇴행 요법을 통해 사람들이 상기하는 전생의 기억이 현생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여 조금 더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도 불과 몇 년 전, 심지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마저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똑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목격자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 그 끈질긴 어둠에서 벗어나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전생 퇴행 치료의 엄청난 효과를 생생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서, 저자는 이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주어진 생을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짧은 생애를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뉴에이지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소수의 치유법으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을 정도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생 퇴행 요법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변 세상과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독특하기에 억측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전생 퇴행 요법의 실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생에 각자가 가진 성격이나 전생에 경험한 중대한 사건들이 지금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 <목차>

- 1장. 뉴에이지를 벗어나 주류가 되다
- 2장. “3501, 저는 괜찮습니다.”
- 3장. 중대한 사건들
- 4장. 메디치와 산책한 남자
- 5장. 새로운 방향을 열다
- 6장. 슬럼프에 빠진 작가의 사례
- 7장. 진로 고민에 빠진 수도승
- 8장. 전생의 삶은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 9장. 삶은 고통스럽다
- 10장. 길을 잃다
- 11장. 어느 여행자의 사례
- 12장. 몽고반점은 보너스
-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앤 바햄(Ann Barham)은 가족, 결혼 생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공인 치료사로 전생 퇴행 요법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치료사로 일하면서 전생 퇴행 요법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이어 왔다.

제목 : COSMOSAPIENS

가제 : 코스모 사피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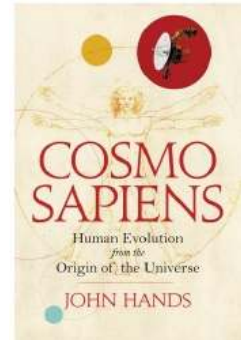
저자 : John Hands

출판사: Gerald Duckworth & Co Ltd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분량 : 704 페이지

장르 : 과학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다.—Tim crane (‘The Mechanical Mind’의 저자, 캠브릿지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

###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 과학계가 설명하고 제시해온 ‘사실’의 실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과학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 우주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여 지금과 같이 지구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탐구를 시작한 저자는 물질과 생명, 의식,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과학계의 각종 이론, 증거에 내포된 편향성과 선입견을 일체 배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주의 팽창, 암흑 에너지, 이기적인 유전자, 신경발생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결정론을 비롯한 과학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현대 물리학의 끈 이론, 통일장 이론 등에 담긴 주장과 원리를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확고하게 밝혀진 ‘사실’과 사실처럼 제시되었지만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저자는 우주론, 생물학, 신경과학 등 과학계 각 분야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거나 이미 정론으로 굳어져버린 내용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한다.

인류는 최소 2만 5천 년 전부터 우주와 인류의 근원에 관한 의문을 떠올렸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믿음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들로 채워졌고, 약 3천 년 전부터는 철학적인 통찰과 논증이 이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또다시 긴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자 인류의 발생에 관한 접근 방식이 뿌리부터 바뀌었다. 과학계는 실증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50여 년 전, 우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고, 30년 전에는 신경학자들이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뇌의 각 부분에 자리한 뉴런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록, 과학 중에서도 어느 분야가, 혹은 어떤 내용에서 우주와 인류의 뿌리에 관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가려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우주가 생긴 후,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게 진화해왔을까? 무엇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성을 만들었을까? 저자는 책을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 의문의 답을 찾아본다.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물질과 에너지의 출현과 진화를 과학계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이어 생명의 출현과 진화에 관한 설명을 탐구한 후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을 상세히 고찰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모든 분석을 토대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 받는 학술지들에 게재된 문헌 자료를 통해 과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밝힌 실증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에 주목하는 동시에 추측은 일체 배제하며 이 수많은 근거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는지 분석했다.

물리학의 빅뱅 이론, 생화학의 원생액에 관한 주장, 신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과정,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을 둘러싼 과학계의 설명 등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던 내용들이 무조건 믿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자의 분석은 참신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충격적이다. 더불어, 인간이 스스로를 반성하게 해주는 ‘의식’이라는 특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다양한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목차>

##### 1장. 탐구에 나서다

#### 1부: 물질의 출현과 진화

##### 2장. 기원에 관한 헛소문

##### 3장. 물질의 출현: 과학계의 정설이 된 이론

##### 4장. 정설이 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하 생략)

#### 2부: 생명의 출현과 진화

##### 12장. 생명에게 적합한 행성

##### 13장. 생명

##### 14장. 생명의 출현 1: 증거

##### 15장. 생명의 출현 2: 가설 (이하 생략)

#### 3부: 인류의 출현과 진화

##### 26장. 인류의 출현

##### 27장. 인류의 진화 1: 원시적인 사고

##### 28장. 인류의 진화 2: 철학적 사고

##### 29장. 인류의 진화 3: 과학적 사고 (이하 생략)

#### 4부: 우주적 과정

##### 32장. 과학의 한계

##### 33장. 우주적 과정으로서 인류의 진화, 정리와 결론

**<저자 소개>**

존 핸즈(John Hands)는 런던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10년 넘게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진화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평가하는 일에 전념했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 논문 두 편(공저자)과 저서, 소설 세 편을 발표했다. 영국 방송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영학을 가르치고 정부 위원회 세 곳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제목: THE STICKING POINT SOLUTION

가제: 비즈니스 걸림돌 해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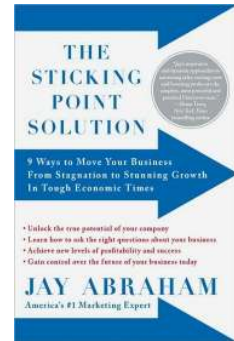
저자: Jay Abraham

출판사: Vanguard Press

발행일: 2009년 5월 26일

분량: 272 페이지

장르: 경영



### 불경기를 기회로, 정체기에서 벗어나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홉 가지 비즈니스 성공 비법

「포브스」 지로부터 최고의 경영 코치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진짜 전문가’, ‘재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업체를 판매의 귀재로 바꿔놓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은 저자가 명실공히 가장 뛰어난 시장 전문가이자 최상위 기업들의 신뢰를 받는 자문가로서 일하면서 직접 발견하고 체감한 비즈니스의 걸림돌과 이 돌들을 싹 제거하는 속 시원한 해결법을 제시한다.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뚜렷한 발전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정 수준에 머무른 채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는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이나 직접 경영하는 당사자마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쓸모 없는 일이나 헛다리 짚는 것과 다름 없는 일에 정신을 쏟는 경우가 많고, 설사 문제를 인지한다 해도 빠져나올 방법을 알지도 못하거나 제대로 찾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업이 정체기에 빠지는 다양한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답답한 단계에서 벗어나 대폭 성장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꺼번에 제시한다.

분명 잘 나가던 회사들이 어느덧 정체기에 접어들고 그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한 경우에만 생기는 일도 아니고,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그와 같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네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의 모든 측면에 사업의 성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 사업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비교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 구체적인 실적 기준이 포함된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적절한 미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이 바로 그 네 가지 원인이다. 이 같은 문제에서 생겨나는 악영향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전체적인 사업 수익이 감소하고 불경기라는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각도 행동도 ‘얼어버리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모두가 좌절하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염려하지만, 남들이 놓친 기회를 잡고 남들이 간과한 시장을 쟁취하여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불경기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사업상의 각종 문제와 장애 요소, 경쟁사와의 치열한 대립을 엄청난 성과로 탈바꿈시키는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제품별 신규 판매량, 평균 판매량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수치화하고, 업무 절차에

체계와 전략이 중심을 차지하도록 이끌고, 실적 목표를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 증가’로 설정하고, 사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쟁사의 장점과 매력, 시장에서 획득한 특별한 위치를 파악하고, 고객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대신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숙지하는 등 저자가 설명하는 해결책은 아주 구체적이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성장 가도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를 아홉 가지로 정리하여 무엇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지 각자 되짚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3,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저서에서 전문가로 언급한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가장 기본적인가장 중요한 사업 성공의 비결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지침서이다.

#### <목차>

머리말.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그것 참 잘 됐군요!

1. 당신의 사업도 침체기입니까?
2. 경쟁에서 밀려 침체기에 빠진 경우
3. 판매량이 충분하지 않아 침체기에 빠진 경우
4. 실적이 일정치 않아 침체기에 빠진 경우
5. 전략 수립에 실패하여 침체기에 빠진 경우
7. 아무 소용없는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느라 침체기에 빠진 경우
8. 시장에서 밀려나 침체기에 빠진 경우
9. 그저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 침체기에 빠진 경우
10.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의 고집 때문에 침체기에 빠진 경우
11.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결론. 축하합니다! 정체기에서 빠져 나오셨군요!

#### <저자 소개>

제이 에이브라함(Jay Abraham)은 ‘에이브라함 그룹(Abraham Group, Inc.)’의 설립자이자 CEO로,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문제 해결과 성장 방안을 제시해 왔다. 수많은 언론 매체로부터 ‘마케팅 천재’, ‘최고의 경영 전문가’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